

목사 폭행 이어 장애인 폭행 '말쌍'



순천 모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 정 모씨. (사진=독자제공)

순천 조례동 교회 폭행 당사자·부인도 가세 장애인 보호자 "억울해 죽겠다" 눈물로 호소

배당에서 설교를 하고있는 목사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장애인이다. (본보 6일자 4면 참조)

S교회에서 김 모(기아자동차 대리점 대표) 씨와 그의 부인인 이 모씨가 정 모(여, 66, 정신지체장애 1급)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정 씨의 모친인 양 모(85) 씨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S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이후 교인 약 30여명이 있는 교회 로비에서 딸(정씨)이 김 대표에게 "왜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나?" 고 말하자, 김 대표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목살을 잡고 폭행하자, 김 대표의 부인인 이씨도 이에 가세하면서 두에서 목과 머리 부분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폭행을 당한 정씨가 10여일 입원 치료 후 또 다시 머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재입원과 통원치료를 받는 등 그때 당시의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장애인에 대한 폭력의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로 전해졌다.

장애인 보호자(모친)인 양 할머니는 "60평생 딸이 불쌍해서 손찌검도 한 번도 하지 않고 키웠는데, 김 대표와 그 부인이 내 딸(정씨)를 때리는 것에 너무나 억울하고 울화가 터진다"고 하소연을 했다.

또 이어 양 할머니는 "딸이 그때의 충격과 고통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간병인이 없어 퇴원한 이후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병원치료비와 딸 간호(병간호)를 위해 종일 엮매여 고통스러운 생활에 연속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김 대표는 장애인 폭행에 대해서는 "당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이 있으며, 또 이날 촬영된 영상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양 할머니는 "김 대표와 그 부인을 고소했다가 다시 고소를 취하했다가 또 다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는 과정에 많은 고민을 했다"며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을 생각하면, 이런저런 일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감광질광했을 뿐 김 대표의 폭행은 사실이라"면서 "그때 당시의 영상과 증인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어 "폭행하는 과정에 김 대표 부인의 핸드폰이 떨어졌으며, 150만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다가 다시 200만 원을 요구하는 황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며 "돈이 없어도 못 주지만, 있다 해도 못 주겠다"라고 성토했다.

교인 A씨는 "그 누구에 잘못을 따지기 전에 김 대표와 그 부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거라"며 "우리 사회에서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이 보살피려고 안아줘야 할 장애인을 폭행한다는 그 자체는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행위로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맹비난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재 S모 교회 예배당에서 목사를 폭행하는 사건에 이어 해당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말쌍을 빚고있다.

특히 이번에도 장애인을 폭행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해당 교회를 다니면서 분쟁과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순천 모 기아자동차 대리점 김 모 대표와 그 부인이란 것이 더 충격적이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S교회 예

수질 1급수·상류 오염원 없는데...물고기 떼죽음 원인은?

나주 만봉저수지서 지난달 18일이후 20일만에 또 폐사

평소 낚시객들 즐겨 찾아...당국 시료채취해 분석 의뢰

1급수 수질에 상류에 특별한 오염원이 없는 농업용 저수지에서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폐사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전남 나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나주시 봉황면에 자리한 만봉저수지에서 7일 오전 물고기 수백마리가 폐사한 채 물위로 떠올랐다.

한 주민이 촬영해 <뉴스1>에 제보한 영상에는 저수지 가장자리를 따라서 어른 손바닥 크기의 붕어를 포함해 민물고기가 하얀 배를 드러낸 채 죽어 있었다.

이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축조해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 1급수의 깨끗한 환경으로 평소 낚시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저수지다.

하지만 이 저수지에서는 지난 3월 18일에 물고기 수십 마리가 폐

사한 데 이어 20일 만에 또다시 대규모 폐사현상이 발생하면서 당국이 원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인 나주시와 수면관리자인 농어촌공사는 곧바로 폐사된 물고기를 수거하고 원인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폐사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총 저수량 241만6000톤으로 비교적 큰 만봉저수지는 상류에 작은 농촌마을 2곳이 자리하고 있을 뿐 특별한 오염원은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나주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특별한 오염원이 유입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등 폐사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료를 채취해 현재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수지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 나주시사무소 8일 오전 직원들이 현장에서 나가 물고기 사체를 수거하



나주시 봉황면에 자리한 만봉저수지에서 7일 오전 어른 손바닥 크기의 붕어 수백마리가 폐사한 채 떠올랐다. (독자 제공)

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나주시사 관계자는 "1급수 수질을 자랑하는 저수지고 현재 녹조 현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폐사한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봉우 기자

대구 31번 입원 환자 오늘부터 최장기록

대구 지역의 첫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였던 31번 환자(61·여)가 입원 50일째를 맞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31번 환자는 지난 2월18일 대구에서 첫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음날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종교집회와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31번 환자보다 더 빨리 증상이 발현한 교인 몇 명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누군가에 여러 피 감염자 중 한명으로 파악된다.

4월 8일은 31번 환자가 입원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다. 통상 격리 해제된 환자들은 발병부터 완치까지 평균 14일 내외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50일은 입원 기간이 매우 긴 편이다. 실제로 51일째 되는 9일부터는 31번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일수 최장 기록을 갖게 된다.

정박 중인 선박 침입해 냉장고 뒤지던 50대

여수해양경찰서는 한밤 중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 침입한 A씨(5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전날 밤 9시45분쯤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 정박해 있던 7.93톤급 어선 B호에 들어가 어획물 보관 냉장고를 뒤진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선박에 보관한 어획물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다른 선박의 소유자 C씨는 자기선박에 있던 중 A씨가 B호의 냉장고를 뒤지는 것을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최근 어획물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해경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범죄 사실과 여죄를 조사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야간에 보안이 취약한 선박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술 취해 역 대합실서 행패·역무원 폭행 50대 구속

기차역 대합실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5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광주역 역무원을 때린 혐의(철도안전법상 직무집행방해)로 A씨(59)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광주역 대합실에서 50대 남성 역무원의 얼굴을 때리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대합실에서 행패를 부린 A씨는 역무원이 자신을 제지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거지는 있으나 역사와 인근에서 자주 노숙을 하고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년간 노숙을 하면서 술에 취해 잦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격리 이탈해 조업한 베트남인 선원 적발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베트남 국적의 선원 A씨(3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조치'(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와 여수시의 자가격리 통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일 선원취업(E-10비자)을 위해 입국 후 전남 구례군에 있는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1차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4일 근무지인 여수로 이동해 외국인 숙소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임의로 주거지를 이탈해 배에 올라 어획물 수거작업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에는 24톤급 어선인 B호(정지망 어선)를 타고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목포 선착장서 운전미숙으로 차량 바다로 추락

전남 목포의 한 선착장 앞 해상에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분쯤 목포시 북항 선착장 앞 해상에 승용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정 1척과 북항파출소 직원, 서해 특구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다행히 사고현장 인근에서 순찰중이던 북항파출소 순찰원 경장이 신고 접수 3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추락한 차량 인근에서 표류중인 A씨(39·여) 등 2명을 발견했다.

윤 경장은 튜브와 구명환을 들고 바다에 직접 뛰어들어 이들을 구조했다. 목포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A씨 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